

# 1년 된 자동차, 주행 중 엔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글\_김성천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법학박사)

얼마 전 신차의 시동 꺼짐으로 인한 교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판매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매장 앞에서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이 이슈가 됐다. 또한 유명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자동차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해결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미국의 레몬법과 같은 한국형 레몬법을 제정해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행 중 엔진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15나9478)를 소개한다.

## 사건 개요

### 1년 된 자동차가 달리던 중 엔진에 불이 나, 심하게 파손

2012년 6월 밤 10시쯤 도로를 달리던 M씨는 옆 차가 울린 경음기 소리에 놀라 차를 세웠다. 정차 후 확인해보니 엔진 아래쪽에서 불뚝이 떨어져 내렸다. 불을 끄려 했으나 쉽지 않아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다. 조사 결과 화재는 차량의 엔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를 구입한지 1년이 조금 지났고 주행거리도 8,000km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M씨에게 2,594만 원을 지급한 뒤,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보험사가 승소했고, 제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제조사는 “M씨가 이전에 두 차례 자동차 사고로 범퍼와 램프 등을 교체한 사실이 있어 화재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를 구입한지 1년이 지나 운전자 과실로 화재가 난 것”이라 주장했고 “M씨가 이전에 차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으나 정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판결

### 엔진은 제조사의 배타적인 지배에 있으므로 결함으로 추정, 제조사의 100%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전문가에 따르면 화재는 차량 엔진룸 왼쪽에서 발생했고 배터리 단자에 삽입하는 고리의 전기적 스파크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조사 자체 조사에서도 고객 과실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M씨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은 제조사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차량은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차량 엔진의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제조사는 2,234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100% 인정했다.

